
동작구의회 북유럽 연수 결 과 보 고 서

- 기간 : 2016. 4. 27.(수) ~ 5.6.(금), 8박10일
- 지역 : 북유럽(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동 작 구 의 회

목 차

I. 연수개요	1
II. 방문지역 현황	5
III. 연수내용	
1. 코펜하겐 환경부	17
- Copenhagen environment department	
2. 복지관리 중앙 사용자협의회	25
- BRUKERRADS SEKRETARIATET	
3. 로알포트 환경프로젝트	34
- Exploateringskontoret “Norra Djurgardsstaden”	
4. 케라바시 사회복지보건부	45
- Kerava city social and health service	
(1) 덴탈클리닉	47
(2) 사회복지보건부	50
(3) 가족상담클리닉	54

I. 연 수 개 요

1. 연수 개요

- 연수명 : 동작구의회 북유럽 연수
- 기 간 : 2016년 4월 27일(수) ~ 5월6일(금), 8박10일
- 국 가 :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도 시 : 코펜하겐, 오슬로, 스톡홀름, 헬싱키

2. 세부 일정

일자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제1일 (4/27)	10:20	• 인천국제공항 출발 - 코펜하겐 도착	
제2일 (4/28)	09:00 13:00 17:00	• 코펜하겐 문화탐방(시청사, 아말리엔 궁전 등) • Copenhagen environment department(코펜하겐 환경부) 공식방문 • 이동(코펜하겐 → 오슬로)	덴마크
제3일 (4/29)	11:00 14:00 17:00	• BRUKERRADS SEKRETARIATET (복지 관리 중앙 사용자 협의회) 공식방문 • 이동(오슬로 → 베르겐) • 베르겐 수산시장 탐방 • 이동(베르겐 → 래르달)	노르웨이
제4일 (4/30)	09:00	• 송네피요르드 및 플롬라인 견학	
제5일 (5/1)	08:00 14:00	• 이동(게일로 → 오슬로) • 오슬로 문화탐방(바이킹배 박물관, 조각공원 등)	
제6일 (5/2)	08:00 14:00	• 이동(오슬로 → 칼스타드) • 이동(칼스타드 → 스톡홀름)	
제7일 (5/3)	10:00 14:00 17:00	• Exploateringskontoret “Norra Djurgardsstaden” (로얄포트 도시계획개발) 공식방문 • 스톡홀름 문화탐방(바사박물관, 세르겔광장 등) • 이동(스톡홀름 → 헬싱키)	스웨덴
제8일 (5/4)	10:30 13:30	• National Public Health Institute in Finland (국립보건복지연구소) 공식방문 • 헬싱키 문화탐방(마켓광장, 카우파시장 등)	핀란드
제9일 (5/5)	08:30 17:30	• 세계문화유산 견학(수오멘린나 요새) • 헬싱키 공항 출발	
제10일 (5/6)	08:20	• 인천국제공항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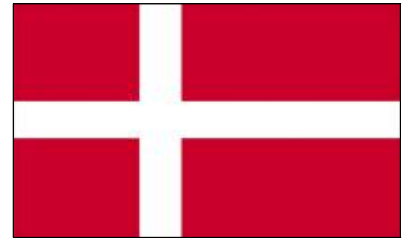
3. 참가자 명단

구 분	연 번	성 명	연구과제
의 원	1	유 태 철	○ 연수단 총괄
	2	신 희 근	○ 관광사업 활성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3	양 창 원	○ 의회운영 효율성 증대 및 유아교육 발전방안
	4	전 갑 봉	○ 예산 효율성 증대 및 경제발전 방안
	5	김 명 기	○ 우수 도시기반 시설실태 파악
	6	김 성 근	○ 교육 및 문화복지 관련 우수사례
	7	최 민 규	○ 문화복지 관련 우수사례
	8	김 현 상	○ 복지 및 환경시설, 도시기반 시설 운영
	9	최 정 춘	○ 도시계획 정비 발전 방안
	10	최 정 아	○ 주민중심 마을만들기 우수실태 파악
	11	김 순 희	○ 재난재해 방지 우수시설 실태 파악
	12	김 주 은	○ 노인복지 관련 우수사례
직 원	13	윤 양 호	○ 의정활동 보좌 총괄 ○ 수행직원 관리
	14	임 대 섭	○ 방문기관 의전 및 일정관리 ○ 귀국보고서 작성 지원 총괄
	15	노 창 욱	○ 방문기관 의전 및 일정관리 보좌 ○ 자료수집 및 귀국보고서 작성 지원
	16	이 철 수	○ 의정활동 사진촬영 관리 ○ 우수사례 기록 등 자료수집 지원

Ⅱ. 방문지역 현황

1. 덴마크 (Denmark)

- 수 도 : 코펜하겐(한국과 -7시간차)
- 언 어 : 덴마크어
- 면 적 : 약 4만3천km² (한반도의 0.195배)
- 인 구 : 약 558만명 (세계 114위)
- GDP : 약 3,017억8,400만달러 (세계 35위)
- 통 화 : 덴마크 크로네 (1DKK=173.31원)
- 기 후 : 멕시코만 난류의 영향으로 기후가 비교적 온화하나 바람이 많고 겨울에는 기후변화가 심한 편이다. 2월에는 평균 -0.4℃, 7월에는 16.6℃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664mm다. 최근에는 기상 이변의 영향으로 엄청난 양의 눈이 내리거나 봄에도(5월까지) 한파가 계속되는 경우가 잦다.



<덴마크 국기>

가. 코펜하겐 (Copenhagen)

- 면 적 : 88km²
- 인 구 : 약 58만명 (2015년)
- 특 징 : 외레순 해협의 남단에 있는 셸란 섬과 아마게르 섬에 자리잡고 있다. 코펜하겐은 1445년 덴마크의 수도이자 왕실 거주지가 되었으며, 종교 개혁에 따른 갈등으로 자주 약탈당했다. 16세기 후반에 무역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시도 확장되었다. 하지만 스웨덴과의 전쟁(1658~60)으로 2년 동안 점령당했고 19세기 초반에는 영국의 폭격을 받기도 했다. 1856년에 성벽이 해체된 후로 도시의 시역이 크게 확장되어 주변의 많은 행정구들을 합병하게 되었다. 도심에는 라드후스플라센(시청 광장)이 있고, 이 광장에서부터 오래되고 구불구불한 상가들이 북동쪽으로 콩겐스네토르(왕의 새 광장)까지 뻗어 있다. 이전에는 무역과 선박의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공업도시이기도 하다. 주요공업으로 조선, 기계류 생산, 통조림 가공, 양조 등이 있다.



2. 노르웨이 [Norway]

- 수 도 : 오슬로(한국과 -7시간차)
- 언 어 : 노르웨이어
- 면 적 : 약 32만km² (한반도의 1.466배)
- 인 구 : 약 520만명 (세계 119위)
- GDP : 약 3,668억 7,300만 달러 (세계 30위)
- 통 화 : 노르웨이 크로네 (1NOK=139.33원)
- 기 후 :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다. 위도 상으로 볼 때는 매우 추운나라라고 인식하기 쉬우나 멕시코 만 난류의 영향으로 내륙, 산간지방을 제외하면 한국보다 조금 더 추운 정도이고, 여름은 평균 25~26℃로 한국보다 시원하다. 연평균 기온은 6.9℃



<노르웨이 국기>

가. 오슬로 [Oslo]

- 면 적 : 454km²
- 인 구 : 약 64만명 (2015년)
- 특 징 : 도시 자체가 하나의 주를 이룬다. 노르웨이 남동쪽에 있는 오슬로 피요르드의 끝에 있다. 1050년경에 세워졌으며 1300년경 하콘 5세가 요새를 세웠다. 1624년 화재로 파괴된 뒤 요새 성벽 아래에 신도시를 세워 크리스티아니아라고 불렀다. 19세기에 인구가 늘어나, 그당시 노르웨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던 도시가 되었다. 1925년 오슬로라고 개명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발전했다. 많은 위성 도시와 주거지대가 오슬로의 동부로 발전했다. 오슬로 항구는 무역·금융·산업·상업의 중심지로 노르웨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분주한 항구이다. 주요 산업은 소비재 생산, 조선, 전자공업, 그래픽 산업이다.



나. 래르달

○ 송네피요르드

- 길이 205km로 노르웨이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두번째로 긴 피요르드
- 최대수심은 1,308m로 피요르드* 가운데 가장 깊고, 중심 지역인 네뢰이 피요르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

*피요르드 :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 옛날 빙하로 말미암아 생긴 U자 모양의 골짜기에 바닷물이 침입한 것

○ 플롬라인

- 1940년에 개통한 산악열차로서 미르달산 역에서 출발하여 송네피요르드를 거쳐 플롬까지 연결
- 길이 20km, 고도 865m, 경사도 1/18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철도 중 하나로서 노르웨이 철도 역사에서 가장 대담하고 숙련된 기술로 꼽힘



3. 스웨덴 (Sweden)

- 수 도 : 스톡홀름 (한국과 -7시간차)
- 언 어 : 스웨덴어
- 면 적 : 약 45만km² (한반도의 2.039배)
- 인 구 : 약 980만명 (세계 90위)
- GDP : 약 5,127억 4,800만달러 (세계 22위)
- 통 화 : 스웨덴 크로나 (1SEK=140.59원)
- 기 후 : 해양성기후. 북부 지역의 여름 평균기온 14.7℃, 겨울 평균기온 -12.8℃. 6월부터 7월까지의 백야현상으로 몇 주에 걸쳐 낮이 24시간 지속되기도 한다. 남부지역은 겨울이 짧고 날씨도 대체로 온화하다. 여름 평균기온 16.6℃, 겨울 평균기온 -0.6℃. 연강수량은 500~750mm. 남동부의 발트 해 연안과 북부의 노를란드 내륙지방은 강수량이 300~400mm로 적은 편이나 서남부의 노르웨이 접경 고산지대는 약 2,000mm로 많다.



<스웨덴 국기>

가. 스톡홀름(Stockholm)

- 면 적 : 377.3km² ※ 인구 약 91만명 (2015년)
- 특 징
 - 멜라렌 호와 살트 원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인구: 시 765,044(2005), 도시권 1,872,900(2005). 1252년 도시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나며, 스웨덴 통치자 비레르 야틀이 기틀을 마련했다. 독일 뤼베크 시와 무역협정을 맺은 후 급속도로 발전했고 1523년 스웨덴의 수도가 되었다. 19세기에는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위성도시들이 발전했다. 원래의 도심인 감라스탄에 세워진 건축물들은 16, 17세기에 세워진 것들이다.
 - 스톡홀름은 스웨덴에서 가장 앞서가는 공업지역으로 금속·기계제조업, 제지·인쇄업, 식품업, 화학 공업 등이 발달했다. 중요한 소매유통 중심지이며, 스웨덴에서 2번째로 큰 항구이기도 하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교육 중심지로, 수십 개의 학문단체와 과학 아카데미가 있다.



4. 핀란드 (Finland)

- 수 도 : 헬싱키 (한국과 -6시간차)
- 언 어 : 핀란드어, 스웨덴어
- 면 적 : 약 33만km² (한반도의 1.531배)
- 인 구 : 약 547만명 (세계 115위)
- GDP : 약 2,345억 7,800만달러 (세계 43위)
- 통 화 : 유로 (1EUR = 1289.64원)



<핀란드 국기>

- 기 후 : 위도 상 북위 60~70° 에 위치해 있지만 발트해와 맞닿아 있어 비교적 온난하다. 남부는 2월 평균기온 -7℃, 7월 평균기온 17℃. 북부는 2월 평균기온 -14℃, 7월 평균기온 13℃이다.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다. 북부에서는 여름에 70일 이상 백야가 지속되고, 겨울에는 반대로 5개월 동안 해를 볼 수 없기도 한다. 여름은 한국의 따뜻한 늦봄 날씨와 비슷하다.

가. 헬싱키(Helsinki)

- 면 적 : 187.1km²
- 인 구 : 약 62만명 (2015년)
- 특 징
 - 유명한 해항이자 핀란드의 산업 중심지이다. 핀란드 남쪽 끝에 있는 이곳은 훌륭한 천연 항구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발트 해가 만입되어 이루어진 핀란드 만에 접한다. 이 도시는 유럽 대륙 각국의 수도 중 가장 북쪽에 있다.
 - 헬싱키는 1550년 스웨덴의 구스타프 바사 왕이 세웠는데, 1809년 러시아로 넘어갔다가 1917년 독립했다. 이후 수십 년 만에 헬싱키는 무역·산업·문화의 주요 중심지로 발전했다. 헬싱키의 발전은 우수한 항만시설, 내륙 여러 지역과 잘 연결된 철도·도로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결과 핀란드 총수입물량의 절반 이상이 헬싱키 항구를 거쳐간다.
 - 헬싱키의 주요산업은 식품·금속 가공, 인쇄, 섬유, 의류 등이다. 유명한 건축물로는 1952년 올림픽을 위해 지은 종합운동장, 엘리엘 사리넨이 설계한 철도역(1914)이 있다.



나. 수오멘린나 요새

○ 주요특징

- 스웨덴 · 러시아 전쟁, 크림 전쟁, 핀란드 국내 전쟁 등의 중요한 싸움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
- 섬 안에는 요새와 연안 방위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에렌스바트 박물관, 잠수함과 해상무기를 전시하고 있는 암펠트 박물관 등이 있음



5. 방문기관 현황

일자	방문기관명	방문목적 등
4.28. (목)	○ 코펜하겐 환경부 (Copenhagen environment department) ○ Njalsgade 13 2300 Copenhagen ○ Tel : +45 51180666	○ 담 당 자 : Kristine ○ 방문시간 : 13:30~14:50 (약 1시간20분 진행) ○ 방문목적 : 도시 환경 관련 일반정책에 대한 브리핑
4.29. (금)	○ 복지 관리 중앙 사용자 협의회 (BRUKERRADS SEKRETARIATET) ○ Olav Vs gate 4, Oslo ○ Tel : +47 23 46 14 67 HP : 970 54 167	○ 담 당 자 : Siri Myhre ○ 방문시간 : 10:15~12:00 (약 2시간 진행) ○ 방문목적 : 노르웨이 복지 시스템 및 일반 정책에 대한 브리핑
5. 3. (화)	○ 로얄포트 환경 프로젝트 (Exploateringskontoret "Norra Djurgardsstaden") ○ Hangovagen 19, hus 1, vaning 4, 115 41, Stockholm ○ http://www.stockholm.se	○ 담 당 자 : Bo Hallqvist ○ 방문시간 : 10:00~12:00 (2시간 진행) ○ 방문목적 : 스톡홀름 인근의 계획도시인 로얄포트 환경 프로젝트 "Norra Djurgardsstaden"
5. 4. (수)	○ 케라바시 사회복지보건부 (Kerava city social and health service) ○ Kauppakaari 11,04200 Kerava, ○ Tel : +358 040 (318) 2170	○ 담 당 자 : Erja Willi Peltola ○ 방문시간 : 11:00~00:00 (약 1시간30분 진행) ○ 방문목적 : 건강관리 관련 시스템 및 복지 대한 일반적인 정보

Ⅲ. 연 수 내 용

1. 코펜하겐 환경부

■ Copenhagen environment department

- 주 소 : Njalsgade 13 2300 Copenhagen
- 담 당 자 : Kristine (TEL : +45 51180666)
- 방문일시 : 2016. 04. 28 13:30~14:50 (약 1시간 20분 진행)
- 홈페이지
 - <http://www.kk.dk/>
 - http://www.kk.dk/etbedrekbh?field_stats_tid=13857 (자전거 관련)
 - <http://www.kk.dk/indhold/53-af-k%C3%B8benhavn-fjernvarme-er-nu-co2-neutral> (CO2 관련)

○ 방문목적 : 도시 환경 관련 일반정책에 대한 브리핑

○ 기관 설명

- 코펜하겐 시는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을 목표로 2015년의 경우 주요 도시를 이동하는 것에 해결방안 모색 및 2025년까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배출이 적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논의 및 검토
- 도심 트래픽을 위해 도로 준설, 7.6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준설, 배를 이용한 포트 버스 사업을 진행 중
- 자전거 도로의 경우 녹색 성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현재 2012년 자전거 통근 36%, 2013년 41% 증가로, 통근에 있어 50%까지를 목표 자전거 도로를 준설 및 권장
- CO2를 줄이고 그 열을 이용한 난방관련 산업도 추진 중

코펜하겐의 새로운 전략 : 함께 창조하는 코펜하겐

- 시민들을 중요한 요소로서 프로젝트에 관여시키고 의사결정을 할 때 시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세부목표 : 살 만한 도시, 책임감 있는 도시, 개성이 있는 도시
- ※ 코펜하겐시는 2013년, 2014년에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 가장 살만한 도시로 선정됨

1 살 만한 도시

(1) 자전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자전거 친화도시

- 코펜하겐 시의 63%의 인구가 매일 자전거를 타고, 통근·통학의 45%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 5대당 자동차 1대의 비율임. 자전거를 타는 시민의 75%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씨에도 자전거를 타는 통계 결과가 있음
-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함
 - 덴마크의 왕세자도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리고 갈 때 자전거를 이용
 - 코펜하겐 시민의 25%가 아이를 태울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고, 종종 자동차 대신 이용함
- 코펜하겐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 이유
 - 88%가 빠르고 쉽고,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대답
 - 자전거를 타기 쉬운 기반시설을 갖추어 났을 때 시민들은 단지 자전거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전거를 선택하는 성향을 보임
 - 자전거는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비용이 저렴

(2)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접근성을 높이는 것
 - 항구 근처의 부지들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업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그곳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코펜하겐시의 도시계획 철학
 - 도시생활을 계획할 때 “사람” → “공간” → “건물” 3가지를 고려
 -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도 건물들 사이에 공간이 없으면 그 안에서 삶이나 생활이 생성되지 않고, 아름다운 건물만 있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건물의 모양보다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춤

(3) 도시 안에 보다 많은 녹지공간이 있는 도시

-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린, 블루 공간을 조성
- 대표적인 예 : 항구
 - 예전에는 항구 인근이 굉장히 더러웠는데, 항구뿐만 아니라 주변의 바다까지 일제히 정화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진행함
 - 현재는 코펜하겐 시내에 있는 항구가 굉장히 깨끗하고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져서,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수영을 즐길 수 있음
 - 코펜하겐시에서 항구 인근에 사우나를 많이 설치해서 겨울에 수영을 한 후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배려함
- 녹색공간의 확충 방법
 -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 이상 공원을 확장시킬 수 없음
 - 공원뿐만 아니라 지붕을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고, 가로수를 더 심고, 건물 외관에도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서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있음
 - 학교 정원을 오픈해서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책임감 있는 도시

- “책임감 있는 도시” 달성을 위한 중요 요소
 - 고위 공무원 등 고위층의 솔선수범
 - 친환경적으로 자원을 조달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선정
 - 코펜하겐시 안에 있는 구내식당에 조달되는 음식 중의 90%를 유기농으로 납품할 것을 조건을 내세워서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침

(1)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중립의 수도 달성

- 풍력발전기의 설치
 - 덴마크는 풍력자원이 많은 나라여서 오래 전부터 풍력발전을 이용함
 - 시에서 풍력으로 발전되는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
 - 2025년까지 100개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계획 수립
-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매스를 사용
 - 목표 :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모두 바이오매스로 대체
 - 실현방법 : 지역난방 및 지역냉방
 - 난방의 98%가 현재 지역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에는 인근의 바닷물을 사용해서 건물을 냉방하는 것에 투자
 - 지역냉방을 사용하면 훨씬 더 탄소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냉방에 사용해야 하는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음
- 태양열 또는 다른 친환경적인 자원을 사용

(2) 기후 적응 도시

- 2011년 대홍수
 - 25분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100년 동안 없었던 홍수가 발생
 - 덴마크, 코펜하겐의 건물들이나 기반시설이 갑자기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사건
 - 코펜하겐 역시 세계 다른 도시들처럼 기후변화에 심각하게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임
- 코펜하겐시에서는 시 전체를 고려하는 총체적인 대규모 계획 수립
 - 미국 뉴욕에서도 코펜하겐시를 우수사례로 보고 플랜B로 두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에 더 많은 녹지, 더 넓은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는 정책 개발
- 현재 추진 중인 기후 적응 정책 : 강 주변 침수지 조성
 - 비가 안 올 때는 시민들이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가 올 때는 비가 고이게 하여 홍수피해를 예방

(3)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도시

-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 덴마크는 폐기물 소각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
 - 폐기물 소각을 하기 전에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재활용을 개선하고자 함
- 현재 건축 중인 코펜하겐 폐기물 소각장
 - 소각장 건물이 스키장으로도 쓰일 예정
 - 2017년 완공 예정인데, 시민들에게 리크레이션 공간도 제공
 - 점점 늘어가는 인구 때문에 도시의 한정적인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 결과물임

3 개성 있는 도시

- 코펜하겐시에서는 개성 있는 도시를 통해 부유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도시가 가져야 할 3가지 가치 : 유연성, 창의력, 혁신
-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시의 주도로는 할 수 없음
 -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주고, 그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을 때 더 많이 허가를 해줌
 - 시민들이 스스로 개성 있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시의 개성이 더 변모하는 것임
- 시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시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해야 혁신과 창의력이 나옴
 - (예시 1) 시민이 계획하는 거리축제
 - 시민들이 앞장서서 하고 계획을 하고, 시에서 프로세스를 도와줘서 성공적으로 끝난 축제
 - (예시 2) 지붕농장
 - 지붕위에 농장을 작게 운영하는 것인데 옥상꽃밭 같은 것임
 - 시민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시에서 허가해서 운영

질의 · 응답

Q : 친환경 정책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한데,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복지정책하고 자전거 장려정책인데 이게 코펜하겐만의 특수정책인지, 덴마크 전체적인 일반적인 정책인지, 상통하는 것인지 국가와 코펜하겐이 같이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자전거 수를 늘리고 자동차 수를 줄이는 정책은 덴마크의 도시 중 특히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960~70년대에 자동차 수가 급증하면서 보행자들의 불만이 많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정치인들이 자동차를 줄이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보행자들을 위한 도시, 코펜하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Q : 보행자를 위한 정책 면에서, 다른 도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A : 다른 나라에 비해 덴마크는 자전거 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덴마크 내 모든 도시가 코펜하겐만큼 높은 자전거 이용률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럽 도시 중에서 자전거 이용률 순위는 코펜하겐이 1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2위입니다. 따라서 덴마크 국민이 유난히 자전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코펜하겐처럼 자전거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다면 다른 도시의 시민들도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Q : 덴마크의 인구가 약 550만 명으로 적고 자동차 제조사가 없어서 가능한 정책이 아닐까요? 한국은 자동차 수가 많아 주거시설을 짓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로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 : 자동차 제조사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를 위한 로비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일 제조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코펜하겐의 보행자를 위한 정책은 지금처럼 잘 시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뉴욕의 경우 과거에는 자전거를 위한 기반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교통체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뉴욕시는 코펜하겐에 자문하여 보행자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결과 최근 5년 동안 뉴욕시에 3,000k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자전

거 전용도로가 있기 전에는 불과 0.7%의 뉴욕 시민만이 자전거를 이용했지만 현재는 약 3.4%의 뉴욕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펜하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전거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평평한 지형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도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Q : 코펜하겐의 전체 도로 중 자전거 전용도로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A : 전체 인도 중 약 80%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 : 자전거 사고는 많이 나는 편입니까?

A : 작년 한 해 동안 자전거 사고로 단 한명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 차도의 구분이 확실히 잘 되어있고,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가 도처에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주의하기 때문입니다.

Q : 도로 면적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면적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A : 도로 크기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의 면적을 기존보다 더 넓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Q : 코펜하겐에서 빗물이 오면 강이나 바다로 흘러보내지 않고 공원 지하에 저류조를 만들어 빗물을 저장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코펜하겐은 강우량이 적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저장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장된 빗물을 다 사용하지 못하여 자연증발이 되면 저류조가 곧 공원의 일부가 되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Q : 코펜하겐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이는 출산율이 증가했기 때문입니까?

A : 네. 코펜하겐에서 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덴마크의 전체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브리핑 모습



▲브리핑 모습



▲질의·응답 모습



▲단체사진



▲단체사진

2. 복지관리 중앙 사용자협의회

■ BRUKERRADS SEKRETARIATET

- 주 소 : Olav Vs gate 4, Oslo
- 담 당 자 : Siri Myhre (TEL : +47 23 46 14 67/ HP : 970 54 167)
- 방문일시 : 2016.04.29 10:15~12:00 (약 2시간 진행)
- 홈페이지 :

<https://www.oslo.kommune.no/politikk-og-administrasjon/etater-og-foretak/velferdsetaten/velferdsetatens-sentrale-brukerrad-article40644.html>

○ 방문목적 : 노르웨이 복지 시스템 및 일반 정책에 대한 브리핑

○ 사용자협의회의 기능

- Byradsavdelingen(복지관리 중앙 사용자 협의회)는 2015년 복지 행정의 서비스와 작업 영역의 강화를 위해 설립
-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자문기관 및 관리·감독의 임무와 비슷한 행정시설에 대한 연결하는 네트워크
- 연령, 성별, 거주지, 인종, 사회적 지위, 질병·진단 및 장애에 관계없이 동질의 서비스 품질을 위한 작업
- 사용자 및 복지기관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쪽 모두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좋은 상호 작용을 위해 기여
- 모든 복지 기관의 사용자 그룹 및 관계 기관, 기관 사용자 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위한 정책을 반영, 조율의 참석

○ 구성 : 사용자협의회 대표들로 구성

- 장애인의 노르웨이어 협회 (NHF)
- 정신 건강에 보호자를위한 국립 협회 (LPP) / PIO 센터
- 장애인, 오슬로 카운티 지점에 대한 노르웨이어 협회
- 약물 남용에 대한 부모협회 (LMS)
- 인도 의약품 정책 협회 (FHN)
- 복귀 중독자이자기구 (RIO) 등

□ 노인복지위원회의 개요

○ 구 성

- 오슬로시는 1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구역마다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된 위원이 1명씩 있으며, 무보수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

○ 선출방법

- 노인복지협회 위원은 노르웨이의 퇴직자들이 투표하여 선출
- 일반시민들보다는 정년퇴직을 한 시민들이 오슬로시의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된 의원들을 선출함으로써 당파를 떠나서 노인복지정책 일을 할 수 있는 위원을 선출하기 위함

○ 설립 배경

- 노인복지정책 법안이 1992년에 제정되면서 위원회가 설립됨.
- 1992년 이전, 노인복지정책 관련 협의회가 설립 되기 전에는 여당 또는 야당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 정책이 국민들로서, 노후보장을 받는 사람으로서 만족도가 부족
- 이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협회의 꼭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2년에 설립

○ 노인을 위한 의자 설치

- 최근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노인복지 정책
- 북유럽 지방의 어르신들은 체구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서 다리가 약하고 오래 걷지 못함
- 공원이나 도심, 공공장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의 설치가 가장 절실한 복지정책 중 하나

□ 노르웨이의 노인복지시설

- 복 지 관 : 아프지 않은 사람들, 비환자들이 자기 집에 살면서 복지시설에 출근하듯이 다니는 시설로써 가장 일반적인 복지시설임
- 거주시설 :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인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시에서 마련한 복지시설에서 살도록 함
- 요양병원 : 장기적인 지병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요양병원
- 재활센터 : 장애인이나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 복지위원회의 정책 발굴 및 적용

○ 도출된 복지정책의 반영

-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은 우선 오슬로 시의회에 반영하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전국 내지 국회에 반영하게 됨
- 위원회에서 결정된 복지정책은 오슬로 시의회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전체, 나아가서는 나아가서는 북유럽 내지 유럽 전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침
- 오슬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책 모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럽 다른 나라들의 모델로도 사용되기도 함

○ 최근 추진 중인 복지정책

- 오슬로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거문제
 - 원래 50만명이었는데, 최근 몇 년동안 10만명이 증가
 - 오슬로는 노르웨이의 수도이고, 인구는 60만 정도 되고, 인구의 20%정도가 정년퇴직자, 노인들로 구성됨
 - 젊은 가족은 들어갈 수 없는 노인 전용 아파트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
- 환경오염 문제의 대두
 - 오슬로시의 면적이 넓어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됨
-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 개선
 -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한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개선 필요성 증가
- 대중교통, 일반차량,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슬로시와 장기간에 걸친 많은 협의가 필요
(예) 전용 장례차만 다니는 도로,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갈 때 턱을 없애고,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 문턱이 없음. 이런 것들은 노르웨이에서 70~80년 전에 정책적으로 시행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함

○ 정부 또는 시로부터의 혜택 제공보다는 영화관, 극장, 공연 등 문화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

- 한국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문화가 아니라 적적해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는 노르웨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임

질의 · 응답

Q : 오슬로시의 인구가 왜 갑자기 증가를 했나요?

A : 노르웨이가 면적상으로 한국의 1.5배 정도가 되는데, 인구는 약 500만명으로 적습니다. 오슬로시의 인구가 많아지는 이유는 오슬로가 행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수도이다 보니까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슬로 같은 경우는 인구의 대략 40% 정도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간호사나 서비스업, 3D 업종에 많이 들어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평균수명의 증가입니다.

Q : 애들이 태어나는 건 아니네요?

A : 최근 20년동안 출산에 의한 인구 증가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노르웨이가 지금 1.8% 정도의 출산율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복지정책이 좋다 보니까 점점 출산율이 증가하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Q : 증가가 되도 출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의 이민이 더 많지 않나요?

A : 입양도 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인 출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Q : 지금 오슬로시 전체 예산 중에서 장애인과 노인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A : 현재 오슬로시의 직접적인 노인복지 관련 예산의 비율 자료는 없구요. 대략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각 구역으로 배분합니다. 이후 각 구역에서 인구 비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각 구역마다 노인, 정년퇴직하신 분들의 비율이 전부 다르다보니 어떤 구역에서는 많은 비율이 집행되고, 어떤 구역에서는 덜 집행됩니다.

그리고 두 구역에서 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수영장이나 물리치료소를 두 구역에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예산의 몇 퍼센트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예산의 비율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Q : 요양원 중에서 치매센터 또는 치매 노인을 수용하는 요양원은 얼마나 되나요?

A : 오슬로 15개 구역에 치매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수용하는 시설 수는 40개, 수용인원은 약 4천명 정도 되는데, 시설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40개 시설 중에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20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20개가 있습니다. 현재 시립에서 민간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탁운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민간이 하는 곳이 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Q : 한국에서는 홀로 된 노인이 많아서 이분들을 위한 봉사 단체가 있는데, 오슬로에도 있는지?

A : 노르웨이에 각종 요양시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 “데이센터”라는 요양시설도 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각종 모임도 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 직원을 가정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부 직원이 구역마다 차를 운전해서 그 집에 가서 장도 봐주고, 청소도 가끔 해주는 등 집안일을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소셜네트워크라고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공동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버스로 픽업을 해서 교외의 공원이나 박물관을 가시는 등 어르신들끼리의 모임을 가집니다. 직원이 각 가정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약 1시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방법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Q : 여기에서 여러가지 사업 중 주거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보면 노인 영구임대주택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소득 부분으로 나뉘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 하는지, 아니면 소득 계층에 따라서 하우스 사업을 나뉘어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노르웨이 사람들은 잘 삽니다. 대대손손 내려오는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노르웨이 정년 퇴직자를 예로 들면 70~80%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챙겨주는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동이 어느 정도 불편하면 정부 요양시설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본인 집이 편하니까 시설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시설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노인들을 위한 상업용 거주주택입니다. 어르신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으면 관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보통 직원 1명이 한개 층을 담당하는데, 아침에 이 집에 가서 아침을 잠깐 해 주고, 저 집에 가서 잠깐 해주고 하면 챙겨 드리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거동이 힘들게 되면 요양원에 들어가시는데, 그때는 어르신들이 자기 집을 팔고 상업용 노인거주주택을 삽니다. 그래서 상업용 노인거주주택도 매매가 굉장히 잘 됩니다.

Q : 노르웨이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A : 여자의 평균 수명은 83세, 남자의 평균 수명은 79세입니다.

Q : 최근 이슈가 되는 사회문제는 무엇인가요?

A : 노인들이 사회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과 같이 사회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연령 차에 학대를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과 일을 같이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 십년 동안 그 부분들을 해결을 못 하고 난제로 남아있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Q : 노인 인구가 20%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예를 들어 실버타운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총 몇 %정도 되고, 그런 시설이 몇 개정도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구분이 되어 있는지요?

A : 오슬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주택 같은 것이 각 구역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오슬로시가 15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가 큰 구역은 2개씩 운영되기도 합니다. 오슬로시 전체로 보면 시립이 총 19개 시설이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더 많습니다.

시립에서 운영하는 노인주거시설은 식당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식사하는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반면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주거시설은 미용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의사, 그리고 식당 등 시설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립 시설의 장점은 학생들이 와서 공연도 해주고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인력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시립이 잘 되어있고, 시설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민간이 잘 되어있다.

Q : 노인정책으로 보면 미국보다 오슬로가 더 뛰어나다. 오슬로 정책이 국제수준에 걸맞는 정책인지?

A : 노르웨이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37만평방킬로미터인데 인구는 500만명밖에 안됩니다. 이 때문에 큰 도시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지만, 작은 도시나 시골은 그렇지 못합니다. 노르웨이는 지방주정부라는 개념의 도가 19개가 있다. 그 밑에 지방자치시가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시의 수가 433개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인구가 500명, 1,000명밖에 안 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규모는 작아도 모든 행정기관이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난으로 도산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자체는 광활해서 여기 한집, 저기 한집 있다 보니까 도시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들 때가 많습니다. 운전도 많이 해야 하고,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도 많다 보니 들어가는 예산의 밸런스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북

지서비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은 다른 데에 예산을 안 쓰더라도 복지서비스는 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르웨이의 모든 지자체에서 거의 똑같은 노인복지정책과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노르웨이는 미국보다 노인복지는 몇 배로 많습니다.

Q : 2015년 11월에 의원이 추대됐다는데 추대가 선거로 하는 선출인가요?

그렇다면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뽑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조금 전에는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퇴직한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고 했잖아요. 전문가를 그렇게 뽑기가 쉬운가요?

A : 오슬로시에 있는 모든 정년 퇴직자들이 아니고 오슬로시에 있는 정년퇴직자 협회에서 두 분을 선출해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협회에서 다른 두 분을 추천한 거고요. 선거로 당선된 게 아니고 추천입니다.

오슬로 정년퇴직자 협회는 현재 회원은 백만명입니다. 협회에서 그 중 2만 명에 한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그 2만명에 소속된 협회가 이 분들을 추천한 것입니다.

Q : 최근의 노인복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A : 일반적인 노인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향후 오슬로시의 노인들에게 문화적이고 활동적이고 사회진출적인 테마로 복지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오슬로시가 특이한 점은 매주 진행되는 “노인 주간” 이 있습니다. 1주, 2주, 3주 이렇게 진행되는데, 1년에 한번은 합니다. 여름철인 6월부터 7월 사이에 하는데, 작년에는 휠체어를 타고 경마장에서 달리기 대회를 하는 테마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는데, 작년에 했던 그 테마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 진 자 료



▲브리핑 모습



▲브리핑 모습



▲질의·응답 모습



▲현장견학



▲단체사진

3. 로얄포트 환경 프로젝트

■ Exploateringskontoret “Norra Djurgardsstaden”

- 주 소 : Hangovagen 19, hus 1, vaning 4, 115 41, Stockholm
- 담 당 자 : Bo Hallqvist
- 방문일시 : 2016. 05. 03 10:00~12:00 (2시간 진행)
- 홈페이지 : <http://www.stockholm.se/> (Exploateringskontoret)
<http://bygg.stockholm.se/Alla-projekt/norra-djurgardsstaden/>

[Exploateringskontoret Stockholms Stad]

: 도시개발, 공원 조성, 학교, 거리 조성 및 유치원 등의 계획 관리하는 기관

[프로젝트 : 로얄포트 환경 프로젝트 “Norra Djurgardsstaden”]

- 로얄포트 : 스톡홀름 인근의 계획도시
- 스톡홀름의 인구 백만 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인근 남쪽과 항구지역 개발을 200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
- 이 프로젝트는 12,000 주택을 추가로 늘리고 35,000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스톡홀름 시내로 이어지는 신개념 시티 트램 인프라 구축과 현대적인 항구시설 완공을 결합한 프로젝트
- 스톡홀름 로얄 항구는 기존의 딱딱하고 낙후한 항구의 이미지를 벗어나 보육, 녹색 공간, 문화, 스포츠에 주거, 직장,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중교통에 대한 도시의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음
- 또한 환경을 해치지 않고,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자연과 융화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현재 다른 나라 국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2015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43개국 4,000 여명의 이 분야 관련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진행 과정에 대한 브리핑, 현재까지 진행상황 등에 대해 듣고, 보고, 자문을 구하고 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주요 특징

- 로얄시 프로젝트는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건축회사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협상을 거쳐 하나의 환경 도시를 만듦
- 건축주들이 제안하는 에너지 프로그램, 정치인들이 제안하는 에너지 프로그램을 모아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옴
-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토지들이 모두 시유지라는 것임
-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가 스톡홀름시의 산하기관과 개인회사를 포함해 40개 회사인데, 여러 회사가 참여하게 되면 더 많은 환경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환경 이외의 장점으로서는 많은 개발자가 참여함으로써 생동감이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음. 각 건물마다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이나믹한 도시를 만듦

○ 재생도시의 개념

-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넓게 펼쳐져 있는 녹지대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계속 오염되고 있는 항구도시를 재개발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을 추구함
- 예를 들면, 원통으로 가스를 만드는 오염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다시 정화를 해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이를 환경도시 혹은 재생도시라 함

○ 개발 방법

- 스톡홀름시에서 토지의 정화작업이나 사회적 생산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이후에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건물들을 짓는 방식
- 이 지역이 시유지이지만 개발을 위해서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의 반 정도를 개발자들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함
- 스웨덴은 모든 거주지역을 만들 때 50%는 렌트하우스, 50%는 개인에게 매매를 원칙으로 함

- 이 밖에도 학생들의 기숙사,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시설 등이 있음
- 이 지역이 슬리핑타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음. 이 구역에서 생활하면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준다는 것이 스웨덴의 지역개발의 개념임
- 항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2천 가구밖에 못 들어가감
 - 항구 근처에 건물을 지을 때 메인스트리트에는 오피스 콤플렉스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뒤에 거주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지침을 엄격히 지켜야 하기 때문

○ 로얄시 프로젝트의 비전 : 차를 쓰지 않는 것

- 주택을 판매 할 때에도 차가 없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캠페인을 하기도 했고, 현재 주차공간은 필요한 자리의 반으로 줄이고 있음
- 주차공간을 원하는 건물주들은 건물을 지었을 때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지어야 함. 그리고 모든 주차장의 20%는 전기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함
-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지하철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스톡홀름시까지 약 7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트램(전기차량)으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이 되어 있음



▲사전 브리핑



▲사전 브리핑

○ 스톡홀름시의 재건축

- 60년대, 70년대 지은 아파트들을 친환경 개념으로 다시 재개발
- 한국과의 차이점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고, 건물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 리모델링한다는 점. 요즘 60년대, 70년대 건물들에 대한 프로젝트라고 하면 태양에너지로 열공급을 할 수 있는 건축방법으로 많이 바뀌고 있음

○ 스톡홀름의 도시계획구를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의 요구사항

(1) 에너지 절감

- 화석연료로부터의 독립
 -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데, 이 구역은 솔라셀을 주로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물론 태양에너지보다 혁신적인 에너지 공급 방법이 나온다면 바뀌 나갈 수 있음
 - 종전까지는 에어컨이 필요없는 지역이라서 냉방에 신경을 안썼는데, 최근에는 모든 건물에서 냉방처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사용
- 이 지역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제품은 에너지효율 등급이 가장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치
 - 스웨덴은 모든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안에 전기제품들이 빌트인으로 들어는데, 이곳은 건물을 짓는 회사에서 에너지효율 등급이 가장 좋은 제품으로 빌트인하도록 되어 있음
 - 1년 기준 1㎡당 55Kw 이상을 쓰면 안됨.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은 80kw인데, 이 지역은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설정했으며, 앞으로 40kw까지 줄이자는 주장도 있음

(2) 운송수단

- 이 구역에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 인프라는 스톡홀름시에서 마련해 주었는데, 그 중 하나가 미래 지속적인 운송방법임
-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차를 쓰지 않아도 되는 매력적인 상황을 만들
 - 인도, 자전거도로 등을 가정 안전하게 만들도록 하고, 한 세대당 0.5대의 주차공간만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대신 아파트에 세대당 2.5대의 자전거를 파킹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한 시간만 렌트를 하는 카풀제도를 시행
 - 모든 아파트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샤워시설, 자전거 주차시설, 자전거를 고칠 수 있는 워크샵 등을 제공해야 함
 - 모든 주차장을 지하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지하로 만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거공간에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예정임. 올드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800미터 정도 걸어가서 차를 타야 함

(3)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 우수, 낙수 등 스톱워터(storm water)를 하나의 수원으로 이용
- 그린스페이스 인덱스는 어떠한 지역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녹지대가 지나가느냐 하는 수치인데, 이를 다른 환경도시인 메를린 등에서 나오는 모든 디렉션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음

(4) 재활용 시스템 : 쓰레기 집하장치

- 스웨덴에서 1970년 개발된 쓰레기 집하장치로써 한국에는 용인시 수지구에 수출되기도 함.
-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은 스톡홀름시에서 만들어주고,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건물주들이 연결되는 시스템을 제공해줘야 함
- ①종이, ②태울 수 있는 쓰레기, ③플라스틱 세 종류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함
- 원리 진공청소기와 같아서 쓰레기를 흡입해서 시속 60km의 속도로 바로 열 발전소로 가는 시스템임

-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커다란 트럭들이 와서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차량으로부터 CO₂ 배출량이 매우 많기 때문임
- 세가지 종류 외의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 각 아파트 지하에 분리수거하는 룸을 만듦.
 - 하수 슬러지, 동물의 오물, 음식물 쓰레기 등을 모아서 바이오가스를 생산
 - 각 지역마다 본인들이 직접 가서 버리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별도로 제공
 - 최근에는 각 동네별로 이동식 분리수거를 실시. 예를 들면, 테마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버릴 자전거나 어린이장난감을 수거하고, 그 중 다시 사용 가능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재사용하는 것임. 이 제도 시행 후 버리는 쓰레기 중 50%를 재활용함

(5) 건물들의 환경적 요구조건

- 개발자들은 이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식물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재배방식을 선택

(6) 삶의 질 개선

- 삶의 방식에 대한 사고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계속 미래지향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모든 개발자들은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발표를 해야 함
- 스웨덴에서는 환경건물임을 인증하는 “환경건물 골드” 라는 마크가 있는데, 이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방음, 채광, 공기청정도, 습도 조절, 쾌적한 실내온도 유지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주민을 위한 교육이 필요. 에코시스템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미나 등을 통해서 입주민들에게 지식을 전달함

○ 로얄시 프로젝트의 성공 키포인트

- 첫 번째, 정치인들의 강한 의지
- 두 번째, 개발지역이 시유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개발방식
- 세 번째, 정치인, 개발자, 입주민들 간의 대화 및 협조

질의 · 응답

Q : 개발자들이 다 짓고 나면 전부 시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A : 이것을 콘도미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40개의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이 집을 짓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를 살 때 전체 액수를 내고 사서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용자받은 돈을 입주인들이 평수에 따라 나눠서 냅니다. 렌트 아닌 렌트비를 내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Q :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동안 그렇게 내면서 사는 것인가요?

A : 아니요. 그 개념은 아니구요

Q : 운영도 실제로 시에서 하는지?

A : 스톡홀름시에서 40개 회사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40~50개 회사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정해준 규정에 맞는 회사가 당첨되는 것입니다.

Q : 당첨 여부는 공개입찰로 결정하나요?

A : 그렇습니다.

Q : 재생사업이 시유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사유지가 있다면 어떻게 보상하는지요?

A : 전국의 70%가 시유지이다 보니 스톡홀름도 거의 시유지라서 문제가 될만한 구역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 만약 사유지가 있다면, 공정가격으로 주인과 협상을 해서 매입합니다.

Q : 도시재생사업을 어떤 곳은 오염된 항구도시로 했고, 여기는 공업도시를 재생사업으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도시는 오래된 것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 형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존 개발회사는 이윤을 얻기 위해 들어오는데, 사업을 통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 건축비는 일반 환경에 맞춰서 10%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환경건물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짓기도 전에 전부 분양됩니다. 스톡홀름 사람들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적이고, 이것을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Q : 그렇다면 그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는 없어요?

A : 사실 이런 프로젝트가 30년 전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전기차를 쓰면 파킹을 무료로 한다던지, 이런 건물을 지으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게 있었는데, 지금은 스톡홀름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박혀있어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자기의 미래 지향적인 삶을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과 여기에서 산다는 것이 일종의 프라이드입니다.

Q : 이곳의 도시계획은 특별히 환경부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개발과 환경은 어찌보면 대립된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하는데,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과에 다른 별도 부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 부서에서 다 통제하는지요?

A : 도시계획과 환경과 다 따로 있지만, 같이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도시계획과에 환경전문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톡홀름은 16구로 나뉘어 있는데, 구에 환경 담당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Q :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이 신문, 플라스틱, 가열성 세가지로 분리된다고 하는데, 그림에서 하나의 파이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림만 그런 것인지 실제로 세 개로 되는 것인지요?

A : 실제로 세 개로 나가고 요즘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추가되었습니다.

Q : 새로 들어오는 모든 아파트는 저 재활용 시스템을 쓰나요?

A : 환경프로그램은 새로 짓는 곳에 씁니다. 관심 있는 분은 www.envac.com 을 쓰면 한국어로 쓰레기 집하장치 설명이 나오는데, 앞으로 인천공항 쓰레기도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저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녀가면서 가장 관심있게 봤던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envac 이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의료 쓰레기 시스템으로 시작했는데, 병원에서 관을 연결해서 종이를 바람으로 보내는 원리입니다.

Q : 12,000세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의 규모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A : 터미널 하나가 5,000 ~ 6,000세대를 감당합니다.

Q : 재활용 시스템은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요?

A : 처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40개의 회사가 연결하는 책임을 지고, 건물 하나하나가 협회가 되어 유지됩니다.

Q : 쓰레기처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 건물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렌트비 평수에 포함됩니다.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을 위해 쓰레기를 집하해서 나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Q :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지요?

A : 1970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에 들어온 프로젝트이고, 대대적으로 전체가 다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톡홀름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새로 짓는 신도시에는 만들기 쉽습니다. 현재 한국에도 들어가고 바르셀로나에도 들어가는 등 세계 각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흡입장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Q : 오염된 땅을 정화시켜서 도시를 재생했다고 하는데 그 오염된 것을 어떻게 재생하는지, 그리고 기초단계에서 그러니까 토목을 먼저 해서 50%를 분양해서 충당한다고 하는데, 토목공사를 다하고 분양하면 가격이 많이 오를텐데 어떻게 하는지요?

A : 일단 이 정화조란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일단 시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전부 정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지를 갖다가 팔게 되는데, 그때 다시 되돌려 받는 액수가 거의 맞춰진답니다.

Q : 토지를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 지금 이런 기술적인 것은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비용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것을 다 만드는데 1/3 정도가 정화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거기 보면 기름하고 오염된 그런 끈적끈적한 그런 것들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건조화 시켜야 됩니다.

Q : 그러면 시기적으로 오래 걸릴텐데요?

A :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곳에 육아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6m를 파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적용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Q :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A :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2010년에 시작해서 2030년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220억 스웨덴크로나(한화로 약 2조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항만시설에 투자하는 액수가 다른 지역 보다는 액수가 많이 들어가지만 항구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는 액수도 못지 않게 많습니다.

Q : 정치인들이 제안해서 했다고 들었는데요. 보면 여기 고친 흔적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조례나 법을 개정해서 하는 건지 운영규칙을 정해서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지요?

A : 맨 처음 국가에서 내려오는 환경 정책이 있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스톡홀름에서 적용 되는 게 있습니다.

Q : 이 프로젝트만 따로 위에서 제정한 법은 없는 건가요?

A :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요구조건이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도·시를 예로 들면, 시는 나라에서 내려오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타이트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입니다. 토지가 갖고 있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모든 요구조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 진 자 료



▲브리핑 모습



▲현장견학



▲현장견학



▲현장견학



▲단체사진

4. 케라바시 사회복지보건부

■ Kerava city social and health service

- 이 름 : Kerava city social and health service
- 주 소 : Kauppakaari 11, 04200 Kerava,
- 담 당 자 : Erja Willi Peltola (TEL : 040 (318) 2170)
- 방문일시 : 2016. 05. 04 11:00~00:00 (약 1시간 30분 진행)
- 홈페이지
 - <http://www.kerava.fi/palvelut/liikunta-ja-ulkoilu>
 - <http://www.kerava.fi/palvelut/liikunta-ja-ulkoilu/liikuntapaikat/city-voimailusali>

○ 방문목적 : 건강 관리 관련 시스템 및 복지 대한 일반적인 정보

○ 기관 설명

- 사회복지보건부는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관리 및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성인 사회 복지 및 상담, 사회주택, 사회 지원 및 재활 업무 경험, 비용, 서비스를 제공
- 아동복지 관련 지역 사회의 관심과 위탁 양육, 가족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서비스는 수신, 직업 및 지원 활동, 작업센터, 가족 상담센터 등이 있음

1. 덴탈 클리닉

○ 개 요

- 만 18세 이하면 누구든지 무상으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전쟁 재향군인은 무상으로 지원
- 케라바시의 경우 복지보건서비스 같은 경우 진료비의 14%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
- 핀란드 치과 의료진의 50% 정도가 공적의료 부분에서 근무함
- 성인 남자의 50%가 하루에 두 번 양치질을 하고, 여성은 80%가 하루에 두 번 양치질을 함
- 고객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작은 재원으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예를 들면, 치과 간호사 네명이 각 진료의자마다 있고 의사 한명이 돌아가면서 진료하면서 시간과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함

○ 핀란드 치과 진료 현황(2015년)

- 치과 진료 예약이 약 4만 5천건, 환자는 1만 4천명 정도
- 연령대별로 보면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약 36%, 18세에서 64세가 50% 정도, 65세 이상이 18%임
- 점점 노인의 치과 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치과 검진 주기
 - 취학 전 : 연령 1년 반이 되었을 때, 3세가 되었을 때, 5세가 되었을 때 검진
 - 취학 후 : 1학년, 3학년, 5학년, 8학년에 검진

질의 · 응답

Q. 18세까지는 무료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재정을 담당하나요?

A.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Q. 18세가 넘어서 64세까지는 자부담이 14%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한국처럼 보험료를 재산에 비례해서 내는지, 소득에 의해서 내는지 궁금합니다.

A. 보험제도가 아니고, 이쪽으로 예산이 나와요. 예산이 나오면 그 중 일부를 개인 부담금에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진료부 부담금 외에 별도로 내는 의료보험료는 없습니다.

Q. 한국은 사보험이 있잖아요. 여기는 사보험 제도가 어떻게 돼 있나요?

A. 여기는 한국처럼 의료보험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보험을 드는 경우는 내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빨리 치료를 받는 등의 보장에 대해서 사보험을 들 수는 있겠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사보험에 가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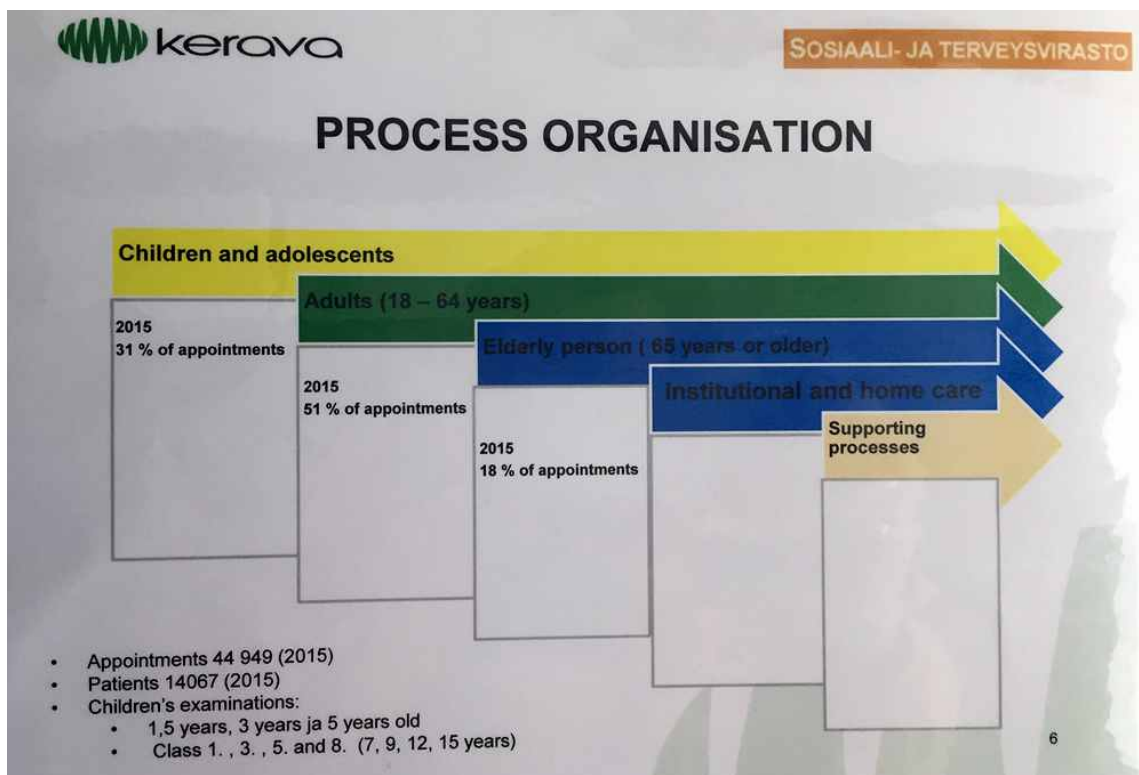
Q. 특히 여기 시에서는 다른 질환도 많은데 특히 치과 질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검진을 해서 치과 관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뭔가요?

A.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비용적인 면에서 여러 면으로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자료



▲브리핑 모습



▲브리핑 자료

2. 사외복지보건부

○ 케라바시 일반 현황

- 1924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92년이 되었고, 1970년에 도시권을 받음
- 면적은 40km²로 핀란드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임
- 인구는 약 3만5천명, 인구 밀집도는 핀란드에서 세 번째임
- 2016년 현재 지방세가 19.25%로서 핀란드의 시 중에서 부유한 편에 속함
- 2010년부터 노년층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관리서비스 수요 및 제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케라바시의 주요행사
 - 6월: 재즈 페스티벌, 케레바의 날, 8월: 마늘축제, 9월: 서커스 마켓

○ 핀란드 지방자치단체 개요

- 핀란드의 지자체는 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 정부에 기초해서 세워진 것이라서, 지자체나 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로부터는 분리되어 있고, 국가로부터도 일부분 독립되어서 재무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지자체의 시정은 지방정부의 법조항에 근거해서 시정을 할 수가 있고, 지자체의 의회가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임
- 지자체의 구성 : 정치적 시스템, 전문가적 시스템 두 분야로 구성
 - 시의회가 케라바시의 정치적 라인의 가장 위쪽에 있고, 그 아래에 시 위원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결정된 실질적인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행정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
 - 시의회에서는 시위원회 산하에 보건복지, 교육, 기술 등 많은 부서를 세울 수 있음

○ 케레바 시의 사회복지보건서비스 현황

- 지자체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회복지보건분야인데, 보통 지자체 총 예산의 50%가 할당이 되고 있고, 핀란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GNP의 9% 정도가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배정됨
- 스웨덴, 덴마크 등 다른 북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예산은 적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사회복지보건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분야는 교육으로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전문기술대학 등을 지자체에서 운영함
- 의료나 복지를 하나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서 연합으로 공동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다른 민간 기관으로부터 구매를 하기도 함
- 의료서비스 종류 : 1차 진료, 전문가 진료
 - 1차 진료는 보건소에서, 전문가 진료는 병원에서 제공
 - 1차 진료는 케레바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전문가 진료는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서 제공함
 - ※ 케라바시 보건소 : 1차진료, 응급조치, 물리치료, 임신부, 소아 진료 등 제공

○ 당면 문제

-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를 부양하기 위한 의료비용, 통신설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젊은 사람들은 더 새로운 서비스를 원하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공급하는게 상당히 어려움

○ 핀란드 보건복지시스템에 대한 개혁 추진

- 작은 도시는 단독으로 모든 복지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움. 종전까지는 1차 진료와 전문가 진료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보건분야와 복지분야도 따로 있었지만 지금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임

질의 · 응답

Q. 시에서 하는 보건소 같은 병원이 있는데 개인병원은 어떻게 되는건지? 공공의료
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A. 15~20% 정도 됩니다. 1차 진료소는 보건소, 전문병원은 모두 대학병원 이상으
로 되어 있어요. 개인병원은 있는데 1차 진료정도 간단한 진료만 합니다.

Q. 그러면 거의 공공 의료 서비스네요?

A. 케라바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개인 클리닉이 많이 있긴 합니다.

Q. 개인 병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보건소에서 지출한 비용하고 똑같나요?

A. 개인병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80~100유로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주는데, 똑같은 시간에 공공의료를 이용하면 14유로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Q. 그러면 왜 개인병원을 이용해요?

A.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빨리 치료를 받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닥터가 시원시원
하게 진료를 해준다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
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Q. 개인병원에서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나요?

A. 사립 진료소,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약간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사 진 자 료



▲브리핑 모습



▲단체사진

3. 가족상담 클리닉

○ 관련 법규

- 사회복지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모든 지자체는 어린이 양육과 가족 상담을 위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특히 어린이들이 긍정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또한 보건복지법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음

○ 대 상

- 케라바시는 가족상담 클리닉이 가족지원 서비스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신생아에서 만 13세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 해당이 됨

○ 목 적

- 가족들의 기능적인 능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 등 유연적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가이드하기 위함

○ 프로그램

- 진료, 검사, 평가, 상담, 자문, 그리고 심리치료. 특히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인지적으로 사회적인 발달과정을 지원

○ 클리닉 전문가 구성

- 심리학자(3명), 사회복지사(3명), 의사(1명), 심리치료사(1명)

○ 클리닉 대상 유형별 비율

-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어린이 행동장애 문제 : 42%
- 본인이 작게 느껴지고 불안감, 두려움을 가지는 내면적 장애 : 20%
-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학습장애 등 : 10%
- 가족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한 가족상담 : 9%
- 부부간 불화 등 가정 위기 : 6%
- 가정폭력은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가족들이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클리닉 진료 유형별 비율

- 상담업무 24%, 검진 27%, 가족치료, 상담치료 등 치료 42%, 가족 구성원과 연결되는 사람에 대한 조언서비스 7%
- 만 7세부터 12세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취학연령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 등 확인이 쉽기 때문에 치료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가족구조를 보면 결혼가족 40%, 싱글가족 60%

○ 그 밖의 진료 과정

-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가족학교, 그룹들이 함께 만나서 3년에 걸쳐 치료하는 과정도 있음

질의 · 응답

Q : 한국은 위기가정이 있으면 찾아가면서 상담도 하는데 핀란드는 어떻게 하시는지?

A :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방문도 하지만 행동이상을 보이는 경우는 부모들이 보통 전화를 해서 직접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 가정폭력은 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A : 대부분 피해자는 여성들이고 남성들이 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있는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사 진 자 료



▲브리핑 모습



▲현장 견학